

무안서 청년들 특별한 꿈의 무대 열린다

군, 14~16일 남악중앙공원 일원서 YD페스티벌 개최
김산 군수 “젊은 세대 마음껏 에너지·열정 등 발산”

젊은층 인구가 많은 무안에서 청년들의 특별한 꿈의 무대가 펼쳐진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남악중앙공원 일원에서 제5회 무안 YD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응원하고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

기 위한 자리로, 다채로운 무대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4일 해병대 의장대와 군악대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에일리, 민경훈, 케이시가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15일에는 거리 퍼레이드, 전국 댄스 경연대회와 뱅크투브라더스·레이디바운스의 게스트 공연이 이어지고, 머쉬베놈·호마들의 화려한 힙합 공연과 싸이버거의 댄스파티로 열기를 이어간다.

16일에는 전국 밴드 경연대회와 실력파 락커인 국카스텐, 체리필터, 엔분의일의 강렬한 공연으로 YD 페스티벌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는 해병대 군악대, 스포츠 치어리더, 타악 퍼포먼스 팀 등 전문 공연단과 대학

생, 청년단체 등 1000여명이 참여해 관람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행진으로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3X3 길거리 농구대회, YD 불명존, 청춘 버스킹, 디지털 체험존, 메이커스페이스, 청년플랫폼 체험프로그램,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해병대와 함께하는 마린챌린지, 4차 산업 체험관, 아케이드 오락존, TMI진단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무안 농특산물 판매장, 남악상가 공동홍보관, 무안 문화인 국화 전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전시·판매 코너가 준비됐다.

축제 기간 흰색 상의와 청바지를 착용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드레스코드 이벤트’와 ‘보수를 이겨라’ 등 흥미로운 현장 행사도 펼쳐진다.

김산 군수는 “YD페스티벌은 청년이 중심이 돼 직접 만들어가는 무안의 대표 축제다”며 “젊은 세대가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완도, 외딴섬 이동 군수실 운영
사후도 주민 등 불편사항 청취

완도군은 최근 현장 소통과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외딴섬을 대상으로 이동 군수실을 운영했다.

이번 이동 군수실은 군외면 사후도와 고마도를 찾았으며, 본 섬과 떨어져 행정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정책해 반영해 참여와 신뢰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외면 사후도와 고마도는 40여 가구가 거주하고 해삼, 굴 등이 주 소득원이며, 육지와 섬을 왕래하는 정기 여객선은 1일 3회 운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아리-중앙시장 간 버스 노선 증편, 다목적 인양기 설치, 차량 도선을 위한 철부선 보조 항로 개설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신우철 군수는 “보조 항로 개설 및 철부선 운항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보조 항로 개설의 경우 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딴섬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도군은 외딴섬 방문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연중 운영 중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농산물은 ‘신토불이’...“우리 것이 최고” 담양군은 최근 용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추월산 주저장에서 ‘용면 신토불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장터에는 용면을 비롯한 담양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고구마, 버섯, 단감 등 신선한 농산물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진도, 군민 화합·새로운 도약 한마당

‘제50회 진도군민의 날’ 성료...체육대회 등 화합의 장

진도군은 최근 진도공설운동장에서 ‘제50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군민의 날 5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 첫날에 열린 기념식에는 읍·면 선수단과 각급 기관, 단체, 향우회원 등 약 1300명이 참석했으며, 7개 읍·면의 특색을 담은 입장식으로 ‘제50회 진도군민의 날’ 시작을 알렸다.

군민 체육대회에서는 7개 읍·면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축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 등 16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펼쳤다.

특히 줄다리기 경기는 선수와 응원단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군민 화합의 참모

습을 보여줬다.

체육대회를 진행한 결과 종합성적 1위 의신면, 종합성적 2위 진도읍, 종합성적 3위 군내면이 각각 차지했다. 이 밖에 화합상 임회면, 응원상 고군면, 모범상 지산면, 성취상은 조도면이 받았다.

조규철 군체육회장은 “승패를 떠나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함께 즐기는 건강한 체육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군수는 “제50회 군민의 날은 군민이 함께 이뤄온 진도의 성장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진도군은 최근 진도공설운동장에서 ‘제50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진, 군민행복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반값여행 정책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대

강진군이 어려운 재정 가운뎃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강진군민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이번 민생지원금은 순수 군비로 지급한다.

군은 이를 위해 당초 1회 주경 시 관련 예산 64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됨에 따라 군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늦춰 정부 2차 지급 후인 11월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진군 군민행복지원금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급된다. 군민 1인당 20만원씩 전액 지류형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온라인 신청 및 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강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신

청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이번에 군에서 지원하는 군민행복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신청·지급된다.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형식이다.

정부지원금이 세대원 각자 별도로 신청했던 것과는 다르다. 좀 더 빠른 지급을 통해 신속하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에 세대주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과 동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대주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군은 초기 일주일동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거주불편자나 고령자를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강진사랑상품권은 강진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



디서는 사용가능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되도록 12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진원 군수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연말까지는 내수진작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정부 민생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 갑작스런 소비위축 현상을 방지하고 동절기 난방비 등 가정 내 지출규모가 커지는 11월에 지급하는 것이 군민들의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영암, 농업인의 날 영암한우 특별할인전

11일 영암실내체육관...구이·국거리 1+1 행사 등 진행

영암군은 오는 11일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영암한우 특별할인전’을 개최한다.

영암군축협과 함께 하는 이번 할인전은 지역 대표 축산 브랜드인 영암한우의 흥

보와 판촉을 위한 장으로, 영암군민이 품질 좋은 한우를 경제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별할인전은 기념식 당일 영암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영암한우 등심·안심·채끝·삼치살 등 구이용과 국거

리 제품을 구입하면 1팩에 1팩을 더 주는 1+1 방식으로 진행되고, 한우 가공식품인 곰탕·육포는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이승준 군 농축산유통과장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영암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축산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며 “한우 소비 촉진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분들의 할인전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이진목 기자 sa4332252@

신안, ‘솔라리그’ 보급 성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신안군은 최근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신재생에너지 지자체 보급성과 부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 지자체와 민간 기관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과 정책 성과를 경쟁하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올해는 200여개 지자체와 기관이 경쟁을 펼쳤다.

신안군은 태양광 1인당 보급량 5.63kW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214MW 규모의 신규 태양광 설비를 보급, 1인당 보급량 5.63kW로 면적당 보급률 0.33W/㎡를 기록해 전국 최상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태양광 보급 성과를 지역에너지 전략과 연계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인 ‘햇빛연금’을 통해 군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익에 참여하는 혁신모델을 구축했다.

해상풍력 발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안군은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3년 환경부 장관상, 지난해 태양광보급 우수지자체 선정에 이어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까지 수상하며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단순한 보급 실적을 넘어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태양광·해상풍력 보급을 통해 햇빛·바람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